

인도네시아, 미국산 닭 부분육 수입금지 조치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국내 양계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산 닭고기 부분육 수입을 정식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미국산 닭고기 부분육 금수조치를 취해 왔으나 이번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함에 따라 공식적인 금수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산 닭고기로 인해 소규모 육계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우려해 내려진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산 닭고기 부분육에 대해서만 금수조치를 취한 것은 통닭의 경우는 자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은데다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도체인 신선육을 위주로 재래시장에서 유통이 이루어 져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닭고기 시장 개방압력에 대항, 아세안 연계 생산자 조직을 결성을 통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닭고기 가격 빠른 상승세 지속

미국의 닭고기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농무성(USDA)에 따르면 전국 12개 도시의 닭고기 도체(정육) 평균가격은 러시아로의 수출이 격감하기 시작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8년 8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난 10월 닭고기 kg당 평균가격은 1340원으로 지난 99년 동월대비 4.3%가 상승하였다. 부위별로는 다리부

위의 도매가격이 빠른 오름세를 보여 kg당 919원으로 99년 10월에 비해 30.8%가 올랐으며 연초에 비해서도 30%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닭고기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닭고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169만7천톤이 수출돼 전년대비 23.7%가 증가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수출이 격감해던 러시아의 경우 국내 계육생산이 저조한 반면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내부사정의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발트해 연안국 수요를 포함하여 전년동기 4배가량 가까운 58만4천톤 2000년 1~8월까지 수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계육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어 지난 2000년 1~10월까지의 계육 생산량은 1156만톤으로 도계가공업자가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생산량 조절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8.5% 감소한 37만1천톤에 그쳤다는 것.

또한 향후의 미국산 닭고기 가격동향은 생산량을 어느정도 억제하고 수출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에 달려있지만 USDA에서는 2000년 생산 및 수출이 각각 2.7%, 6.8%가 증가하더라고 평균 계육도매가격은 전년대비 4.5% 하락한 kg당 1298원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도 계육의 도매가격은 단기적으로 회복국면이 예상되지만 평균적으로는 전년보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